



학도넷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발행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발행일 2017년 12월 15일 | 총권 44호 | 주소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강하2로 267 | 전화 02-720-7259 팩스 02-720-7259 | 이메일 hakdonet@hanmail.net | 편집 학도넷사무처 | 디자인 인디자인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마을과 '유쾌한 작당'

유쾌한 작당? 얼마 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인문학 공부를 해보자 하여 민주시민대학을 열자는 뜻을 모아 8주에 걸친 재미난 작당을 하였는데 바로 마을과 한 '유쾌한 작당'이었다.

마을과의 유쾌한 작당에는 마을의 활동가, 시민단체의 회원들, 젊은 학부모들이 모여 민주시민으로서 고민해야 할 것들과 복지과 세금, 여성, 4차 산업혁명과 인문학 등을 다뤘다. 준비 작업부터 참여하고 싶은 대상자들에게 주제와 강사를 열어놓고 강의를 선택하는 방식을 취해서인지 열띤 강의는 물론, 참여자의 열기 또한 우리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였다. 그래서 우리는 작당을 계속하기로 했고, 이번 강좌에 참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민대학을 아예 만들어 보기로 했다. 놀라운 일이다. 스스로 필요를 만들고 실천한다. 곧 2기 마을대학이 준비될 것 같다.

이제는 이런 풍경들, 서울이라는 대도시 안에서도 마을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 무엇인가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까지 하다. 물론 예전의 우리네 동네나 마을공동체 만큼은 아니지만 함께 경험을 공유하는 '마을'을 찾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 아니 온통 '마을'이다.

마을학교, 마을축제, 마을활력소, 마을목공소, 마을관리소, 마을활동가, 마을지기, 마을생태계... 예전에는 마을하면 시골의 어느 작은 마을, 동네 어르신들이 모이는 마을회관, 아니면 북촌 한옥마을, 안동 하회마을, 순창 고추장마을, 전주 한옥마을 등 어떤 특정한 마을이 떠오르곤 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어디에도 마을에 공간과 사업, 행사, 사람이 함께 붙어 다닌다.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작은 동아리와 모임들이 생겨나고 크고 작은 프로그램,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박수와 환호도 있었고 우려와 비판의 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이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함께 마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했던 경험, 마을의 생각끼리와 일거리를 제안하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어 본 경험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생각을 모으니 그동안 버려졌던 아파트 공간에 북카페가 생기고, 하늘에 영킨 통신선들의 지하화를 추진하게 되고, 온 동네가 꽃밭이 되고,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산과 공구함, 쓰레기정류장이 생겼다. 이런 시도와 실험들이 자꾸만 일어나면 주민자치센터나 구청 등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함께 살아수 있는 어떤 힘이나 공동체가 저절로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고 마을이 살아나고 동네가 재미있어지게 될 것이다.

마을살이는 꼭 주소지가 있는 마을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보면 하루를 거의 보내고 있는 직장이 있는 곳에도 위원신청이 가능하다. 우리 마을, 우리 동네, 우리 고장... 범위와 대상 표현이야 어떠하든 그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결국 마을살이의 주역은 주민이고, 마을은 곧 사람이다.

마을의 시대, 마을사람들끼리 책읽기 모임 추진을 추천해 본다. 마을에서 함께 놀기에 책읽기만한 것이 없다. 이것이 발전해서 마을에서 배움이 일어나고, 시민대학으로까지도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마을에서 모이는 것에 인문학적 소양을 더해 살아가는 데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마을살이가 있을까 싶다.

오현애 | 학도넷운영위원/교육나눔협동조합 이사장

차례

01_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02_ 학교 도서관 탐방

03_ 이런 수업 어때요

04_ 추천도서

내가 권하는책

06_ 학교 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최선옥, 조영순, 오승주,
안양예술고등학교 문예창작과 출판 동아리 '나랏말싸미'

08_ 학도넷 소식

학도넷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또는 사서교사, 학부모, 학생, 문헌정보과 교수, 출판인 등 도서관과 독서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연대모임입니다. 학도넷 운동은 평등교육과 문화운동의 시작입니다.

학도넷소식지는 학도넷 운동의 일환으로 도서관과 독서운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학도넷 회원(준회원 이상)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회원으로 등록하실 분은 학도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요. www.hakdo.net

학교 도서관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보낼 곳 : hakdonet@hanmail.net

북(Book)적 북(Book)적 모현 꿈마루 도서관

- 이보혜(경기 모현초등학교 도서관 담당교사)



부모님과 함께하는 아침 책 읽기(금요일 아침맞이)

모현초등학교는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에 있는 전교생 360명의 소규모 농어촌 학교이다. 우리 학교에는 교실 한 칸 정도의 작은 꿈마루 도서관이 있다. 사서교사가 없는 모현 꿈마루 도서관은 독서동아리 학생들과 도서도우미 학부모, 그리고 모든 교직원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운영되고 있다. '늘 따뜻하게 반겨주는 사서교사가 없으니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이 적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시작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모두 도서관 활성화 위해 힘쓰다보니 이제는 그 노력의 결실로 모현 꿈마루 도서관은 늘 아이들로 북적이다.

특히 아이들이 도서관을 많이 찾는 날은 5, 6학년 독서동아리 학생들과 부모님들께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날이다. 매주 수요일은 독서동아리 학생들이 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매주 금요일은 부모님들께서 책을 읽어 주신다. 아이들에게 아침 8시 40분부터 책을 읽어주면서 그림책으로 아침맞이를 하는 셈이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한 학년의 아이들이 도서관에 오는데 특히 1, 2학년 아이들이 많이 온다.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그림책 아침맞이에 참여하고 있는 2학년 학생은 이번에는 어떤 언니가 어떤 그림책을 읽어줄지 궁금해서 자꾸 오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그림책 아침맞이를 하고 있는 5, 6학년 독서동아리 북(Book)소리와 학부모 독서동아리는 자발적으

로 만들어진 동아리이다. 동아리는 책 읽어주기 활동뿐만 아니라 도서를 대출·반납하고 도서관을 관리하는 일까지 맡아서 하고 있다.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독서동아리 학생들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는 도서도우미 학부모들이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반겨준다.

또 꿈마루 도서관이 북적북적하는 날이 있다. 바로 독서쿠폰 달란트 시장이 열리는 날이다. 독서쿠폰 달란트 시장이란 도서관에서 독후활동을 하고 받은 독서쿠폰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살 수 있는 도서관 행사이다. 이는 아이들이 도서관을 일회성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서관을 찾고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이벤트이다. 독서쿠폰 달란트 시장은 연 4회 열리며 달란트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독서쿠폰은 하루에 한 장씩만 받을 수 있다. 책도 읽고 독서쿠폰도 받고 일석이조 아닌가? 그래서 아이들은 하루에 한 번 도서관에 오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역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기획하고 도서도우미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준비, 운영되고 있다.

우리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는 외부 기관을 적극 활용 하였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등 외부 기관의 지원 사업을 살펴보고 우리 학교 실정에 맞고 도서관에 꼭 필요한 사업을 신청

하여 진행하였다.

가장 먼저, 아이들이 다양한 종류의 책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순회도서를 신청하여 연 4회(약 800권의 책) 상시 운영하였다. 매년 신간도서를 자체적으로 구입하지만 공간과 예산 문제로 다소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3월에는 도서관을 위해 봉사해주실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는 연수가 진행되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학교도서관 담당 전문가를 초빙하여 모든 도서도우미 학부모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현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꿈마루 도서관을 위해 의지를 다지고 협력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5월에는 3학년(3학급)과 6학년(2학급)을 대상으로 도서관 활용 수업을 진행하였다.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사서교사와 담임교사가 협력하여 교과 연계 도서관 활용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학교는 담임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도서관 활용 수업을 실시하는데, 이 때 교육청 공문 등을 통해 신청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서교사의 부재를 보완하였다. 12월에는 5학년(3학급)을 대상으로 인문학을 통한 도서관 활용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힘을 모아 따뜻하고 살아있는 북(Book)적 북(Book)적 학교 도서관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 늘 상주하는 사서교사의 손길이 더해진다면 아이들의 웃음과 꿈으로 더 북(Book)적이는 꿈마루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북(Book)소리 학생동아리 활동(꿈마루 도서관 대출·반납 봉사)



고학년 선배와 함께하는 아침 책 읽기(수요일 아침맞이)



독서쿠폰 달란트 시장



북(Book)소리 학생동아리 활동(유치원 동생들에게 책 읽어주기)

독서향이 풍기는 교정

- 배명순(중국 길림성 영길현조선족실험소학교 교사)



2017년 3월 14일 학부모자원봉사팀에서 도서정리



부모님과 함께 하는 '책사랑' 활동



우리민족 전통퀴즈대회

길림성 영길현조선족실험소학교는 1933년에 건립된,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학교이다. 현재 44명의 교직원과 200여 명의 학생이 함께 공부한다.

우리학교 도서실은 한국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후원과 영길현교육국의 지원금, 학교측 자축금이 힘을 보태어 만들어진 12번째 네모상자 도서관으로 2015년 5월 5일에 문을 열었다. 네모상자도서관은 '내가 꿈꾸는 모든걸 상상해봐, 자유롭게'를 줄여놓은 말이다.

160여 평방메타의 도서공간으로 아담하게 꾸며져 있는 도서실은 현재 만여 권의 책이 소장되어있다. 그중 조선어 도서가 약 6000여권, 중국어 도서가 4000여 권의 책이 개방된 도서실에 빼곡히 꽂혀 있다. 집처럼 편안하고 아담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고 꿈을 키우는 소중한 공간이다.

현재 학교에서는 매주 조선어, 한어 각각 한 시간 씩 독서과를 배치하였으며 언제든지 도서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루종일 개방되어 있다. 그리고 학부모자원봉사단을 건립하여 학부모님들의 봉사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도서실을 개방하고 있으며 방학간에도 3주일 간 개방하고 있다. 현시대 최신 디자인과 새로운 도서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네모상자" 도서실은 학교와 부모님들의 열성으로 학생들의 행복한 도서실로 꾸려가고 있다.

김춘애 교장선생님은 일찍이 "책을 읽는 아이가 앞서간다."는 생각으로 독서공정을 시작했다. 배명순 선생님은 독서활동을 책임지고 리희문 선생님이 관장으로 서 도서실을 관리하고 강순화 선생님을 사서선생님으로 따로 정하여 함께 학교의 독서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독서잔치를 벌인다.

봄철이면 "4.23 세계독서의 날"을 맞이하여, 가을철이면 "독서의 계절"을 맞이하여 잔치를 벌인다. 이를테면 "내가 만든 책" 전시회, 책표지그리기, 동화캐릭터만

들기, 부모님과 함께 책읽기, 독서퀴즈, "우리 말 퀴즈왕", 독후감백일장, OX 퀴즈풀기 등 활동을 벌인다.

지난 4월, "세계독서의 날"을 맞이하며 영길현조선족 실험소학교에서는 다채롭고 풍부한 독서계열활동을 진행하였다. 4월 19일 학교에서는 전체 학부모님회의를 조직하여 "독서향기가정"을 표창하고 "독서와 함께 성장하는 아이"란 주제로 우수학부모 경험교류를 진행하였으며 제4회 영길현조선족실험소학교 "부모님과 함께 하는 '독서절' 활동 가동식을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3년 간의 독서활동에 대해 전면적인 총결을 지었다.

4월 20일 학교에서는 각 학급을 단위로 "우리들의 책잔치"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저급학년은 책표지그리기, 동화캐릭터그리기, 책갈피만들기, "나만의 책" 만들기 등 활동을 전개하였고 고급학년은 컴퓨터로 독서신문을 제작하는 활동을 벌리었다. 학생들의 작품들은 모두 각 학급복도 전시란에 전시하되 전체 부모님과 선생님들, 학생들이 공동투표하는 방법으로 우수작품을 선발하였다.

4월 21일 학교에서는 독서계열활동으로 "우리민족 전통퀴즈대회"를 진행하였다. 이 활동은 학생들이 OX가 표시된 카드를 들고 퀴즈의 정답을 찾아 O 또는 X 카드를 머리위로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번째 퀴즈에서 절반이상의 학생들이 탈락하였지만 부모님이 줄뚝기하는 방식으로 패자부활전을 조직하여 전체 학생들이 기사회생하였다. 긴장하고도 치열한 경쟁을 거쳐 4학년 1반의 박영성 학생이 "우리 민족 전통 '퀴즈왕'"으로 선발되었다. 이 활동은 학생들이 우리 말, 우리 글, 우리 민족 전통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는 뜻깊은 활동이었다.

4월 22일 네모상자도서관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책사랑" 활동을 진행하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과 함께 책읽는 행사는 이번 "부모님과 함께 하는 독서절" 활동을 고조로 이끌었다.

이렇게 네차례 되는 독서계열활동은 전체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독서열을 불러일으켰다.

이 행사는 길림신문에 게재하여 학교의 독서활동을 선전하였다.

지난 10월, 학교에서는 "책과 함께 우리 민족 전통 알아보기" 독후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를테면 3학년에서는 세배하는 전통레절, 4학년에서는 옷놀이, 화투놀이, 산가지놀이 등 전통놀이, 5학년에서는 김치 만들기, 김밥 만들기, 6학년에선 비빔밥 만들기체험, 송편 만들기체험, 팔죽만들기 체험 등 독후활동을 알차게 진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학교에서는 역사이야기 읽기 대회를 조직하고 독후감쓰기대회를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독서기록장을 리용하여 각 학급마다 독후활동을 알차게 진행한다. 독서기록장은 생각 느낌 적기, 표지 그리기, 인상깊은 장면 그리기, 편지쓰기, 마인드맵 그리기, 상상주기, 낱말찾기, 광고, 인물카드 만들기, 느낌을 글로 표현하기 등등 다양한 형식으로 글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학생들은 수시로 도서관을 찾아서 책을 보고 기록장에 자기의 상상을 부여한 그림, 글 등을 콕콕 채워 넣는다.

그리고 각 학년마다 조선어문담당교원은 도서실에서 매주 한 시간의 독서수업을 학생들의 연령 특점에 따라 다채롭게 진행한다. 저급학년은 선생님과 함께 읽는 활동, 캐릭터 만들기, 책 만들기, 퀴즈내기 등 활동을 보급하고 고급학년은 독서토론회, 자료수집활동, 자기가 읽은 책 추천하기, 독서신문만들기 등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한다.

사서선생님은 독서씨클을 한주에 두 차례씩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각 학급마다 벽보를 리용하여 책읽기활동을 전시하고 도서관벽보에는 학교의 독서행사를 전람한다. 학기말에 가서는 "독서왕", "독서향기반급"들을 평선하여 장려하면서 독서를 즐기는 아이들을 고무해준다.

영길현에서 유일한 우리 민족 도서실, 우리 말 책을 맘껏 읽을 수 있는 독서향이 풍기는 교정에서 영길꿈동이들의 꿈은 영글어가고 있다.

책모임 '북원스'가 권하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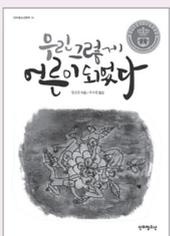
'북원스'는 북 원더러스(book wanderers·책방랑자들)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book wants의 뜻과 영화 '원스'의 느낌을 담은 다의성을 내포한다. '북원스'는 일본 미야자키현에 있는 키조 그림책 마을을 함께 다녀와 자연스럽게 인연의 끈을 이어온 사람들의 모임이다. 책을 사랑하고, 책과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우리 북원스의 매력이다. 2박3일 키조의 인연이 평생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 안과 밖에 책이 존재하는 한에서 말이다.



달라이 라마의 고양이

데이비드 미치 지음 / 추미란 옮김
산티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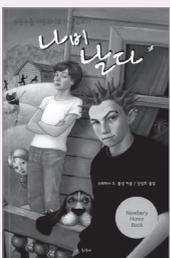
인도 뉴델리 슬럼가 쓰레기 더미에서 생을 마감할 뻔한 파란 사파이어 빛 눈동자의 고양이. 그 고양이를 달라이 라마가 구출해 함께 생활한다. 12가지 이야기는 고양이의 성장과정이지만 결국 우리가 깨우쳐야 하는 깨달음의 상징이다. 할리우드 여배우가 펼치는 숲 살리기 운동 개막식에서 일어난 카메라 사건 등 고양이의 일상을 통해 달라이 라마의 '현명하게 이기적인 이타적 삶'을 찾아가는 여정은 록페스티벌보다 더 큰 즐거움을 줄 것이다.



우린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

창신강 지음 / 주수련 옮김 / 단비청소년

평범한 아이들이지만 사춘기에 겪는 이유 모를 반항, 알 수 없는 충동과 분노를 겪으며 성장하는 아이들 이야기 12편.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아이, 친구와의 갈등으로 주먹다짐하는 아이, 부모를 무시하거나, 아버지의 권위에 반항하는 아이, 외톨이가 된 아이 등 주변인인 부모, 친구,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이해과정이 담겨있다. 청소년들이 겪는 혼란 소재이지만 작가의 유려한 필체와 디테일한 묘사, 따뜻한 시선으로 엮은 한 편 한 편이 가슴 찡하기도, 통쾌하기도 하다.



나비 날다

스테퍼니 S. 톨러 저 / 신상호 옮김 / 동산사

'나비 날다'는 동사형이며 진행형이다. 청소년이라는 혼돈의 시기를 애벌레에서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나비가 되는 성장과정으로 비유하여 표현한 소설이기도 하지만 한번 읽기 시작하면 손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몰입도가 있어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하다. 말쑥쟁이로 중학교를 퇴학당한 제이크가 자연 속 대안

학교에서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찾고 서서히 가족의 일원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된다. 예술가 가족에 재능 없음에 힘들어 하는 아이들과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 주는 어른들 속에서 자존감의 날개를 펴고 당당히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가는 장면들을 읽다 보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로 간 클림트

이해정, 한기일 지음 / 이요재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림과 화가를 모티브로 영화를 분석한 독특한 책이다. 미술뿐만 아니라 시대적 배경, 감독, 음악, 작가 등이 등장하여 영화 감상의 스펙트럼을 넓힌다.

<가장 따뜻한 색, 블루>와 피카소, <아멜리에>와 르누아르, <매드맥스 : 분노의 도로>와 히에로니무스 보스, <올드보이>와 제임스 앙소르, <레드 드래곤>과 윌리엄 블레이크 등 10편의 영화이야기. 그동안 줄거리 위주로 본 영화 한편에 얼마나 많은 인문학적 지식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마지막 거인

프랑수아 플라스 글·그림 / 디자인하우스

"침묵을 지킬 수는 없었나?" 어떤 숲도 강물도 함부로 취하지 않고, 어느 종족도 위협하지 않았으며, 인연을 소중히 몸에 기록해온 거인나라 사람들...; 그 선한 이웃 마지막 거인 안탈라의 슬픈 질책이다.

"별을 꿈꾸던 아홉 명의 아름다운 거인과 명예욕에 눈이 멀어버린 못난 남자, 이것이 우리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거인족이 있다는 달콤한 비밀을 누구보다 먼저 폭로하고 싶은 이기심에, 그만 우정을 잃은 아치볼드 레오폴드 루트모어의 후회가 참 아프다.



그 남자는 왜 이상해졌을까?

오찬호 글 / 동양북스

'남자답게, 여자답게'라는 말을 일방적으로 듣고 자라며 성별 정체성에 갇힌 대한민국 아이들. '여자답게, 남자답게'라는 말 대신 '인간답게'라는 말을 듣고 자란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사회적 관습을 질서라고 여기는 교육행태가 가정은 물론이고 학교, 군대, 사회에서 만연한 지금, 청소년이 개인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는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권한다.



나의 슈퍼 히어로 뽑기맨

우광훈 글 / 문학동네

뽑기 중독. 그것도 어린아이가 아닌 40대 가장이... 실직에다 건강까지 안 좋은 가장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의 무게감과 버거운 현실이 끈고 통이고, 그 고통으로 무언가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른다.

고통을 대면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어떤 사람은 정면승부로 그 고통을 겪어내기도 하지만 여기 40대 가장인 진서 아빠는 인형뽑기에 몰입하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간다. 중학생인 딸 진서의 눈으로 본 아빠의 인형뽑기는 단순한 놀이가 아닌 인생을 건 한판으로 이해된다. 10대이건, 40대이건, 50대이건 우리 모두는 성장 중임을 일깨워준다.



택시 소년, 지지 않는 잎

데보라 엘리스 글 / 윤정숙 옮김
천개의바람

미국의 마약 근절이란 미명아래 돈을 받은 볼리비아 정부는 애꿎은 코카밭을 파괴하여 가난한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 손대기 어려운 코카인 제조자들보다 농민들이 단속하기 쉽다는 이유로, 볼리비아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코카 잎과 함께 해왔다. 고산병을 이기고, 노동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신의 선물로 여긴다.

왜 억울함은 약한 자들의 몫일까? 소년 디에고는 농부들과 힘을 합쳐 정부에 맞서 고속도로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불의에 맞선다. 투쟁은 험난하지만, 연대의 뜨거움이 느껴진다. 전편에 해당하는 『택시 소년』을 읽어보면 디에고가 왜 이런 투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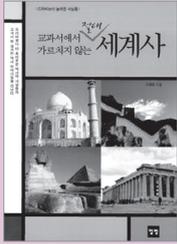


스프링 칸타타

레오 버스카그리아 글 / 조병준 옮김
샌터사

누구나 예기치 않는 죽음을 맞이한다. 그 상대가 가족이거나 오랜 세월 함께한 반려 동물일 때 그 놀라움과 허망함은 말로 표현하기에 너무 벅찬 감정들이다. 따뜻한 햇살의 옹원과 시원한 바람의 살랑거림으로 봄, 여름, 가을을 행복하게 지낸 작은 나뭇잎 프레디는 낙엽 지는 가을 끝자락에서 떨어져야만 하는 나뭇잎의 겨울 여행을 앞두고 두려움에 떠난다. 삶과 죽음은 어제와 오늘의 차이뿐이라는 친구 다니엘의 말이 너무 두려웠던 프레디가 죽음은 생각했던 것보다 포근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처음으로 태어나고 살아온 나무전체의 모습을 보게 된다.

내가 권하는 책



교과서에서 절대 가르치지 않는 세계사

이규조 지음 / 일빛 / 328쪽 / 2005년

교과서에서 배우는 역사가 정말 재미없다는 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일치하는 의견이다. 그렇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용보다는 서술하는 관점과 문체에 있다. 같은 말을 해도 '아'라고 '어' 다르다고 하는데 교과서 내용들은 가뜰이나 정형화된 지식인데다가 그것을 서술하는 문체 자체가 밋밋, 딱딱, 도무지 스토리도 없고, 드라마도 없고, 돌발 상황도 없으니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지겹기만 할 뿐. 하지만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들은 그 어느 비싼 역사책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체계화 시켜 놓았다는 데는 또 의견이 일치된다. 누군가 마음먹고 근사한 요리를 준비해 놓았다 치자. 영양가도 양도 많지만 뭔가 사람들의 입맛을 땡기는 고깃이 없다면 사람들은 결코 '맛있다!' 먹여주지 않는다. 아마도 이 책의 제목이 '교과서에서 절대 가르치지 않는 세계사'라고 붙여진 데는 그런 밋밋한 요리에 몇 가지 양념을 쳐서 사람들이 입맛을 땡겨야지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먹여줘야 영양가도 섭취할 수 있지 않겠나!

책의 차례에 나오는 제목들만 보아도 입맛이 땡기는 양념들로 그득하다. 태양왕 루이 14세의 말 못 할 고통, 플라톤은 동성연애자였다, 흑사병에 대한 기상천외한 처방전, 영국인의 수명이 15세였던 까닭, 노예해방에 무심했던 링컨 대통령, 나폴레옹의 거짓말 등등... 짧지만 골라서라도 들춰보고 싶은 제목들로 그득하다. 그 가운데 <고역 과외, 고대 그리스에도 있었다>의 내용은 그리스의 정치가가 되려면 웅변을 잘 해야 했는데 그런 정치가가 되기 위해 군함 3척 값에 해당되는 고역을 받는 웅변 과외선생님이 있었고, 그 돈을 내고 과외를 시킨 그리스 부모가 있었다는 것이다. 카오~<십자가와 예수>의 내용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끝은 기둥에 매달렸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끝은 기둥이 십자가 모양으로 변신한 역사 뒤에 기독교의 정치적인 포교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려준다. <아일랜드인의 눈물 젖은 감자>를 읽고 '대니 보이'라는 아일랜드 민요를 들으면 아마도 누구나 눈물이 쫄쫄 날 것 같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역사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에게 권하고 싶다. 교과서와 함께 이 책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해 주면서 수업을 진행한다면 아이들의 입맛을 땡길 수 있는 묘미가 있는 사랑스런 역사책이다.

-오경선(일산지역 독서활동가)



출라체

박범신 지음 / 문학동네 / 356쪽 / 2015년

출라체라는 히말라야의 고산을 등반하는 형제의 이야기이다. 이렇게만 이 소설을 소개한다면, 잘 써 봐야 산악인들에게나 감동적인 소설일거라고 선불리 예상하기 쉽다. 남산만한 배낭 들쳐 매고 사나이의 형제애를 부르짖는 수염 난 산악인의 등반 같은 전형적인 이야기 말이다. 그러나 부디 이 작품을 그런 시시한 내용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많은 독자들의 관심이나 경험이 없는 고산등반을 재료로 삼는 건 소설가에게는 어려운 도전이었을지 모르겠다. 누군가가 가슴 아프게 경험했던 것을 재료로 삼아 그 감동을 끌어내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이미 감동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번도 생각하거나 경험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 가슴 아리게 감동을 주는 건 분명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넌 겪어보지 않아서 몰라"라는 허무한 꾀대 같은 결론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생생한 현장감과 주인공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 되게끔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범신은 그 어려운 이야기를 만드는 데에 능하다. 『출라체』는 산악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기억에 의존하지 않았다. 오히려 관심 없는 독자들의 먹살을 잡고 거칠게 출라체를 오른다. 그 산행은 거친 만큼 너무나 생생하다. 그리고는 고산을 오르는 고통이 가져다주는 주마등같은 기억들과 뒤엉키는 감정들까지 함께 전한다. 이 등반을 통해 작가는 논리적인 언어로 도무지 표현하기 어려운 '삶에 대한 욕망'이나 '죽음에 대한 유혹'과 같은 인간존재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낸다. 이렇게 '끌려가듯' 소설을 읽어 내린 후에는, 마치 삶과 죽음을 넘나들었던 산행에서 갓 돌아온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 고민해보게 된다. 고민의 결과는 모두 다르겠지만, 그 실제 같은 상상의 경험은 모두에게 같으리라 본다.

소설가 박범신의 필력이 감탄하게 되는 작품이다. 산에 관한 어떤 흥미나 경험이 없다 해도 감동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작품이니, 부담 없이 펼쳐보시라.

-이선우(충북책모임)



전쟁은 여자 얼굴을 하지 않았다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지음 / 박은정 옮김 / 문학동네 / 560쪽 / 2015년

읽을 사람도, 읽지 않을 사람도 불쌍합니다. 『전쟁은 여자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논픽션이지만 소설처럼 마음을 울리는 다큐멘터리 산문입니다. 조국을 위해 군입대하려는 소녀들의 모습은 맑기까지 합니다. 첫 전투에서 과녁이 아닌 사람을 향해 총을 겨눠야 했던 소녀병사들의 마음을 어찌 짐작이나 할까요? 참전 여성들은 전쟁을 떠올리는 건 끔찍하지만 그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게 더 끔찍하다고 말합니다.

저격수는 저격수대로 간호병은 간호병대로 세탁병은 세탁병대로 또 다른 전쟁을 봅니다. 저마다 자신만의 전쟁을 한 것이지요. 전쟁이 끝난 후 진짜 삶이 시작되었을 때 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살아갈 일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누가 안아주길 바라지만 끌어안으면 영 어색하고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지는데 익숙하다고 합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말을 바라면서도 정작 들으면 이해를 못하고, 다시는 젊음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전쟁의 민낯입니다.

『나는 정말 전선이니 전선의 활약이니 진격과 퇴각이니 그런 이야기, 전복된 열차가 몇 대고, 빨치산의 기습공격은 어땠는지 따위의 이야기가 필요한 걸까?

이미 수천 권도 넘는 책들에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영혼에 대한 이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이야기를 모은다. 영혼의 삶이 남기도 간 흔적을 따라가며 영혼을 기록한다. 나에게 영혼이 걸어진 길이 사건 자체보다 중요하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최소한 우선순위를 차지하지는 않는다. 나는 흥분시키고 놀라게 하는 건 다른 것, 즉 '대체 거기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거기서 사람은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깨달은 걸까? 도대체 삶은 무엇이며 죽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결국 나 자신은 누구인가? 나는 감정의 역사를 쓴다..., 영혼의 역사를 쓴다..., 전쟁이나 한 나라의 역사, 영웅들의 인생역정이 아닌, 그저 평범한 삶을 살다가 거대한 사건의 깊은 서사 속으로,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간 작은 사람의 역사를 쓴다. (90쪽)』

-홍현희(어린이도서연구회 여주지회, 여주자원활동가)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사서

책 언저리에서

최선옥(경기 시흥 송운초등학교 사서)

처음 일했던 도서실엔 문턱이 있었다. 매일 출근하던 나는 무심히 보아 넘긴 미닫이문이었다. 어느 날 도서실 봉사 오시는 학부모님께서 매 쉬는 시간 마다 오는 아이들을 보고,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다.'며 반갑게 맞이해 주실 때야 낮은 문턱을 보았다. 그리고 보니 1층에 있던 도서실이 신축한 3층 교실로 옮겨 온지 7년이 넘어갈 즈음이었다. 눈앞에 있는 아이들만 상대하기도 벅찼던 그때, 낮은 도서실 문턱만큼 나도 아이들에게 경계를 허물었었나? 적어도 도서관이 만만한 놀이터이길 바랐다.

지금 근무하는 도서실엔 문턱이 아예 없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도서관 문턱은 존재한다. 도서실은 조용한 곳, 목소리는 소곤소곤, 발소리는 사뿐사뿐, 도서실에 입구에서부터 선생님 주의 사항을 듣는다. 하지만 교실을 나와 복도를 지나는 순간 조심조심 걷던 발걸음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쉬는 시간과 동시에 아이들이 달려온다.

그저 뛰어 내려오는 계단 길이 좋아서 만만한 목적이 있어서 아무 이유 없이 친구 따라 달려온다. 붙잡고 물어보면, "애가 저 때리려고 해요." 왜냐고 물으면, "애가 먼저 때렸어요." 말린다고 하는 말 "그냥 한 대 맞으면 되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네-에??" 피식 웃고 다시 뛰어 나간다.

도서실, 누구나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곳. 그러나 오는 아이들만 열심히 온다. 어쩌다 한 번 도서실 이벤트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특별히 도서실이 아니어도 아이들은 할 일이 많다. 학원도 가야하고, 방과 후 교실도 있고, 친구와 만나서 놀고 싶어도 따로 시간을 내어야 한다. 한동안 유행했던 영화 대사 "뿔이 중헌디? 도대체가 뿔이 중허냐고?"에서처럼 절박하게 '책이 뭐라고?', 굳이 바쁜 아이들을 불러 세울 수 있을까?

지진으로 1주일 연기된 수능 아침
눈이 펄펄 내렸다.
오는 눈이 멈출까
쌓인 눈이 녹을까

조마조마 두근두근 심장소리
멋쟁이 선생님
신나게 1교시 포문을 운동장에서 열어준다.
축구도 하고, 빙글빙글 맴도 돌고, 자지러지게 깔깔 웃고 뛰다.

펄펄 내리면 좋으련만, 금방 젖어 버린 눈이 1교시를 다 못 채우고 끝나 버렸다.

학교도서관 문턱에서 눈 속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망설이던 나를 찾는다. 책 언저리에서 행복했던 나를, 아이들 역시 그러하기를 소망한다.

"늘어지게 실컷 잠을 자고 난 뒤 아침에 눈을 뜨고 새벽의 공기를 들이마시면 폐가 부풀대로 부푼다. 그러면 이어 깊이 숨을 들이쉬고 싶어지고 가슴 근처의 피부와 근육에 유쾌한 운동의 감각이 일어난다. 자아, 이제 일도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드는 그러한 때."(『생활의 발견』 린위탕 지음, 문예출판사, 2015. p.80)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학부모

학부모도 함께 성장하는 학교도서관

조영순(서울 원당초등학교 학부모)

아이가 1학년이면 엄마도 나이와 상관없이 1학년이 된다고 하는 난생처음 되어보는 학부모 삶이 2013년 3월 시작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새록새록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 시간입니다.

직장맘이었다가 아이가 1학년에 입학 하면서 전업주부의 생활이 시작되고 학부모로 학교 활동도 함께 시작 되었습니다.

첫 1년은 내가 부모로써 학교에 어떤 기여와 활동들을 하는 것이 아이와 학교를 나아지게 하는 일인지 잘 몰랐습니다. 아이의 학교는 2011년 서울에서 첫 번째로 지정된 혁신 초등학교인 원당초등학교였습니다.

2014년에 서울형 혁신학교 학부모네트워크가 조직되어 다양한 학부모들과의 소통이 시작되고 깨우침을 주는 여러 강의들을 경청하며 저의 정신적 성숙이 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같은 마음을 가진 학부모들이 서로 마음을 모우고 조직화된 네트워크를 하게 되고 원당초 내부에서는 기존의 관습을 버리고 학부모회를 재구성하여 다양한 분과와 동아

리들이 구성 되었습니다.

도서분과, 연수분과, 학교 홍보분과 외 다수의 분과 조직이 있고 동아리 분과 안에는 마을탐방, 산책, 하브루타(비폭력대화), 책모임 디딤돌, 텃밭, 놀이맘아이맘등 다양한 동아리에서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도와서 아이들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아이들 성장에 필요한 정서적 지원과 독후활동 놀이활동 등을 함께 힘모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부모 활동이 공공성에 기인하기에 모두 빛을 발하지만 더 잘 자리매김한 도서분과 책모임 활동은 우리학교의 자랑입니다.

개인사정으로 1년여의 시간을 타학교에서 학부모로 지내보면서 도서관이 잘 활성화된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의 극명한 차이를 보았고 그 희생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가 된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학교도서관은 학교 문화를 긍정적으로 꽃피울 수 있는 중심공간이고 공동체, 협력, 나눔, 봉사, 함께하기, 즐거움, 기쁨, 공감, 나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곳입니다. 개인의 성장보단 함께 성장하는 것이 더 가치있고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학교 도서관은 가슴이 뭉클하고 기쁨이 넘치고 아끼지기한 사람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엄마들이 함께 성장하는 곳 그곳이 원당초 도서관이고 원당초 학부모회입니다.

혁신학교 학부모로써 받은 많은 수혜들을 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좋은 동기를 갖고 더더욱 멋진 모습으로 진화 할 수 있게 늘 앞서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며 글을 마칩니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출판사

태양과의 눈싸움 이후 30년 동안의 고민을 담은 책

오승주(인문 고전으로 하는 아빠의 아이 공부 글쓰기)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사건사고를 많이 일으켰던 한국판 '체제'였던 저는 라임오렌지나무가 아닌 하귤 나무가 열리는 파란 지붕을 쓴 집에서 동방예의지국의 백성답게 사고를 스스로에게 저질렀습니다. 화장실 폭발 미수 사건은 최근 출간한 줄고 『인문고전으로 하는 아빠의 아이 공부』(글라이더)에 고백했으니 여기서는 비교적 점잖은 축에 속하는 '태양과의 눈싸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맨눈으로 오래

태양을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열 살 남짓 소년은 1분 가까이 태양을 쳐다보다가 온 세상이 암흑천지가 되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암흑세계가 사라지지 않자 더욱 당황스럽고 초조했습니다. 다행히 암흑은 조금씩 줄어들면서 점 하나로 승화했지만 그때의 순간적이고 사소한 사건은 지금도 제 인생을 태양처럼 비추고 있어요. 줄곧 태양을 따라다녔더니 태양과 말도 섞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태양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태양의 슬픔'을 아느냐고 묻더군요. 태양은 자신이 비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장애물에 가렸거나, 눈을 감았거나, 등잔 밑처럼 너무 뻥해서 몰랐거나, 정말 태양이 못 봤을 수도 있을 수많은 그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보았던 '태양의 덕(德)'입니다.

천리마 기(驥)가 유명해진 것은 날랜 솜씨가 아니라 그가 주인에게 보여준 모습 때문이었다. - 『논어』, 「현문」 편

잘 알려지지 않은 삼장법사의 네 번째 제자는 원래 용이었던 백마입니다. 그도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처럼 하늘에 죄를 짓고 속죄를 위해서 붓짐을 등에 젖지요. 한 나라를 지나다가 국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말 오줌을 써야 할 때 백마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풀에 묻으면 영지초가 되고, 물고기가 먹으면 그대로 용이 되는 보물 중의 보물인 오줌이 제 인상에 남았던 것은 그 효험이 아니라 아무데서나 오줌을 남기지 않으려는 백마의 태도였습니다. 손오공이 진심을 다해 설득하자 백마는 마지못해 오줌을 내놓았죠. 이것이 서유기 10권 중에서 제게 태양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두 개구쟁이와 지내는 아빠입니다. 제가 인용한 글귀와 내용은 인문고전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 태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닮았습니다. 아

빠들은 태양처럼 먼 곳을 보고, 태양을 따라다니느라 방황하고, 태양빛에 눈이 멀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인문고전도 수많은 책 중에서 태양처럼 우뚝 솟아 있지만 직접 펼쳐서 보려는 사람은 많지 않은 책으로 더욱 유명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태양의 아름다움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을 구석구석 비추려는 노력입니다. 아이처럼 너무 낮은 곳에 있는 생명체는 장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태양빛을 왼손에, 인문고전을 오른손에 들고 아이들이 있는 곳 주변을 비춰보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태양이 줄곧 해오던 말씀을 이제야 알아듣고 4년 동안 고심한 끝에 인문고전이라는 태양빛 거울 서른 한 개로 아이를 비춰보고 저 스스로를 비춰본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인문고전으로 하는 아빠의 아이 공부』에서는 부모님이 미처 아이에 대해서 보지 못했거나, 외면했거나,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낯선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너무 많을 수도 있죠. 제가 지금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어린이의 심장'이 아직 쓸 만하다면 부모님들께 선생님들께 어른들에게 넘비받침보다는 좀 나은 구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권해봅니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학생
도서관이 안겨준 특별한 경험, 사부랑사부랑
 안양예술고등학교 문예창작과 출판 동아리 '나랏말싸미'

지난 9월 16일, 시흥시 중앙도서관에서 주최한 시흥시 책 축제 부스에 참여했다. 참여에 앞서, 우리는 글짓기 대회를 열어보겠노라는 목표를 가지

고 기획서를 제출했다. 처음에 우리가 학생 신분이라는 것과 부스에서 백일장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몇 차례 의견 조율이 필요했다. 도서관 관계자분과 거듭된 통화 끝에 부스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결과가 왔다. 글을 쓰게 될 연령층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할 것 같아,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는 500개의 단어를 선정했다. 축제에서 백일장이라는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될까 걱정했는데, 사람들 반응이 꽤 좋았다. 학교 이름을 걸고 참여한 행사인 만큼 많이 긴장됐지만 생각보다 재밌었다. 참여해 주신 200여 명의 시민들 가운데 동심을 그대로 담은 작품, 가슴 먹먹해지는 작품 등 발상이 통통 튀는 글들이 많았다. 이번 활동이 우리에게 추억이자 값진 경험이 되었다.

홍보를 맡은 부원들은 책 축제를 홍보하며 "글을 쓰고 가시면 책을 출판해드려요."라고 외치며 사람들을 모았다. '출판'이라는 거대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처럼 학생들이 말하니 몇몇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었다. "진짜로 책이 출판되나요?"

믿기지 않았지만, 진짜로 출판이 되었다. 책이 출판된 지금도 많이 얼떨떨하다. 그리하여 나온 책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작품집인 『사부랑사부랑』이다. 무료출판플랫폼인 부크크(BOOKK)를 이용했다. 지금은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시대다. 책 표지 디자인부터 속지 사진 촬영, 내지 레이아웃 편집 등 모든 것을 우리가 작업했다. 책 출판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도서관에 꽂혀 있는 수많은 책을 있게 해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사부랑사부랑'은 부크크에서 종이책과 전자책 모두 구입 가능하며, 12월 초부터 교보공식스토어, yes24, 알라딘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책 수익금의 일부는 '시흥시 1%복지재단'에 저소득 계층에게 기부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Inspiration here, there, and everyone.
 상상은 이곳에, 저곳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있다.
 _세르주 블로크

아이 어른 모두가 함께 즐기는 신개념 놀이책

나서가 예술이 되는 50가지 상상

세르주 블로크 지음 | 김두리 옮김

학도넷 소식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학도넷 활동소식입니다.

학도넷 행사

- 2017년 9월 15일 학도넷 소식지 가을호 발행(통권 43호)
- 2017년 11월 13일~18일 2017 중국 동북3성 조선족학교도서관 담당교사연수 진행

신입회원 (2017년 9월~2017년 11월)

- 정회원 : 이은경 한명숙 최진영
 준회원 : 김경순 염효경
 웹회원 : 전명원 이원상 이현주 문희연

회비 및 후원내역 (2017년 9월~2017년 11월)

정회원 회비

- 매월 5천원 : 강복숙 강영미 강정미 곽정은 구미숙 권도경 권순용 권시애 길미숙 길영희 김경숙(보령) 김누리 김대경 김동헌 김리라 김선영 김소원 김심환 김영신 김은영 김정숙 김정윤 김정혜 김하나 김효숙 남규조 마민희 문수지 문원림 박미영 박은하 박준섭 백경숙 백연주 서정원 선보배 성주영 성미경 송경영 송숙영 송혜영 신은미 신정임 신정화 신형란 안경애 안정원 유서연 유영숙 유정원 윤남미 이금화 이미순 이선화 이유정 이은경 이은혜 이주영 이 현 이현애 이혜진 임경순 임민욱 정수연 정영희 정명하 주상태 차진미 채재현 한은미 허지연 허지은
- 매월 1만원 : 강애라 강지영 권향미 김경숙 김광재 김숙경 김은영 김순홍 김승주 김신희 김욱위 김중성 김진희 김진희(관악) 라순희 류주형 문예원글로피아 박 샘 박영옥 박정해 박지연 변영이 백화현 송추향 오현애 오희애 유은실 이경자 이규향 이기영 이덕주 이문숙 이미경 이영주 이찬미 장범진 정수현 정영희 정지영 정진수 조길량 조선희 조은영 조의래 허경림 황봉희
- 매월 2만원 : 김순정
- 매월 3만원 : 도서출판 북극곰, 고래가숨쉬는도서관
- 연회비 : 안재희(16만)

준회원 회비

- 매월 : 김미령(3천) 김민형(2천) 김송요(2천) 김승현(2천) 박영혜(3천) 박인자(3천) 박정미(3천) 박종숙(3천) 손은상(2천) 손은서(2천) 손은재(2천) 송경현(1천) 신수인(3천) 염효경(3천) 이영희(3천) 이제희(2천) 장버리(3천) 장한솔(2천) 조성우(3천) 최선옥(3천) 최유미(3천) 최창의(3천) 홍선희(3천)

정기후원 : 문학동네(매월 20만)

자료집 후원 : 2017 학도넷 심포지움/도서관, 새로움에 도전하다. 창비(1,475,000원)
 광고후원 : 고래가숨쉬는도서관(50만원)

새로 나온 책 보내주신 곳

인간들은 왜 신을 두고 싸우는가? 남녀차별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구름서재)/ 인간의 길, 10대가 묻고 고전이 답하다(글라이더)/ 어느 조용한 일요일(글로연)/ 와글와글 직업 대탐험(길벗스쿨)/ 기억요정 또또(나한기획)/ 쿵푸 아니고 풍류, 너에게만 알려 줄게(문학동네)/ 동글동글 둥근 달이 좋아요(미디어창비)/ 복길이 대 호준이, 삶은 달걀, 판다의 딱풀, 곰아 돌아와!(북극곰)/ 세상에서 가장 잘 웃는 용(비룡소)/ 반은 늑대, 반은 양, 마음만은 온전히 하나인 울프WOOLF(소원나무)/ 초등학교생이 알아야 할 과학 100가지(어스본코리아)/ 그 소문 들었어?(천개의바람)/ 안전 지도로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초록개구리)/ 알사탕(책읽는곰)/ 프로이트, 악몽을 꾸다(탐)/ 그 소문 들었어?(천개의바람)/ 우산을 쓰지 않는 시란씨(천개의바람)/ 캘리의 판타스틱 CSI여행(생각의 힘)/ 주만지, 두 번째 이야기 자수라(키위북스)/ 내 멋대로 혁명(낮은산)/ 글쓰기 하하하(양철북)/ 글쓰기 더하기(양철북)/ 우리모두 시를 써요(양철북)/ 해님우산, 비우산, 구름

우산(키위북스)/ 김성현이 들려주는 참 쉬운 새이야기(철수와 영희)/ 진짜 나를 만나는 혼란상자(마리북스)/ 내일(한울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나다(한울림)/ 폭력없는 교실은 어디 있나요?(팜파스)/ 나는 꽃이다(도서출판 통통통)/ 인문고전으로 하는 아빠의 아이공부(글라이더)/ 오페라의 유령(구름서재)/ 최원형의 청소년 소비특강(철수와 영희)/ 10대와 통하는 심리학이야기(철수와 영희)/ 빨간 주머니(북극곰)/ 눈이 싸뽀사뽀 오네(북극곰)/ 콩, 불렀더니(도서출판 소야주니어)

소식지 보내주신 곳

맨발동무(어린이도서관 맨발동무)/ 책&(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도서관문화(한국도서관협회)/ 학부모신문(참교육학부모회)/ 서울교육(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놀이하는사람들(사)놀이하는사람들/ 고래가숨쉬는도서관 가을호(고래가숨쉬는도서관)/ 개똥이네 놀이터(보리)/ 어린이문화연대/ '동화읽는어른'(사)어린이도서관연구회

***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은 학교도서관활성화를 위해 귀하게 쓰겠습니다. 지속적인 광고와 도서후원을 기다립니다.**

2017 중국 동북3성 조선족학교도서관 담당교사연수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3년째 중국 동북3성 조선족학교도서관 담당교사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진정한 주인이 되는 학교도서관을 위해-상상력과 창의력의 산실, 학교도서관!!-을 주제로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일정 중 하루를 내어 연수 장소인 상지소학교, 중학교의 학부모,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단위학교 연수를 진행했구요. 길림성, 료녕성, 흑룡강성에서 모인 60여명 열정적인 도서관담당교사들과 함께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 교육대상

- 중국 조선족학교 교원(도서관 담당교사, 령도, 교원 등)
- 총 교육 인원 : 60여 명

● 연수장소

- 중국 흑룡강성 상지시 상지조선족중학교(일부는 상지조선족소학교에서)

● 연수기간

- 2017년 11월 13일(월)~11월 18일(토)
- 14일은 상지시조선족소학교, 중학교 개별학교 연수 진행 / 15~17일(3일)은 전체 도서관 담당교사 연수 진행

● 주최/주관 : 연변화동정보교류유희회사

- 후원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신한은행

● 조선족학교연수 물품지원해 주신 출판사 덕분에 풍성한 연수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룡소출판사 에코백 80개/ 창비출판사 마음가방, 마음카드(각 80개)/ 북극곰출판사 종이접기저금통 200개/ 보리출판사 보리도감 10권, 한글수첩, 모빌 각 20개/ 사계절출판사 드로잉북 70권, 독서공책 70권, 그림엽서 7종 500개/ 책읽는 곰출판사 열두달 나무아이 달력 100세트/ 열두달 나무아이, 알사탕

2017 학도넷 후원의 밤 했습니다.(열 네번째)

<학도넷 후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학도넷이 열네번째 겨울을 맞이합니다. 올 한해도 건강한 책문화를 위해 가정에서 학교현장에서 출판현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미래문화를 가꾸시는 모든 분들을 모시고 꿈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디 귀한 걸음 하시어 우리 등 두드러주고 손잡아주는 자리 만들어요.

후원티켓 : 2만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56201-04-173422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학도넷)

문의 : 학도넷 사무처 02-720-7259 / 010-4723-0856

학도넷 겨울사서연수 합니다.

<책세상의 지도를 담다>

학교도서관운영자들은 독서정보서비스를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욕구가 큼니다. 이용자에게 더 섬세하고 친절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장서개발과 수서, 자료 분류와 정리로 모든 자료가 역동적으로 연결되고, 역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사서선생님들의 폭넓고 깊은 장서개발을 위한 노력을 돕고 더 유연한 커다란 사람책으로 거듭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 목적

학교 도서관 운영에 참여하는 담당자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책문화를 익힐 수 있는 장을 열어 학교 도서관활용의 폭을 넓힌다.

● 목표

- 학교 도서관 운영 담당자들의 책에 대한 이해를 넓혀 다양한 관점으로 책을 바라 볼 수 있다.
- 창의적인 접근으로 비판적 책읽기와 그 방법을 알아본다.
- 학교 도서관 담당자로서 수서하는 책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 감사 : 강창래 선생님

책의 정신 : 세상을 바꾼 책에 대한 소문과 진실 저자 (전)느티나무도서관재단의 장서개발위원장

● 강의 일정

1월 16일	주제	세상을 바꾼 책에 대한 소문과 진실
	1강	· 좋은 책이란 어떤 것인가?
	2강	· 세상을 바꾼 책에 대한 소문과 진실
1월 17일	주제	고전을 리모델링해 드립니다
	1강	· 비판적 독서와 그 방법
	2강	· 비판적 독서와 그 방법
1월 18일	주제	재능과 창의성이라는 유령을 찾아서
	1강	· 재능과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2강	· 텍스트와 비디오의 차이에 대하여 <완득이>, <생각의 지도>
1월 18일	3강	· 종합적인 질의응답과 생각의 정리

●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때 : 2018년 1월 16일(화)~18일(목) 10시~17시

● 곳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강당

● 대상 : 학생과 교사, 교실과 도서관을 풍부하게 연결하고 싶은 초중등 사서(교사), 도서관담당교사, 자원활동가 30명

● 참가비 : 10만원 / 학도넷 정회비를 내는 회원 9만원
 국민은행 356201-04-173422(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신청 : 아래 신청양식을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hakdonet@hanmail.net)

● 읽어오기 : <책의 정신 : 세상을 바꾼 책에 대한 소문과 진실>, <재능과 창의성이라는 유령을 찾아서> (강창래 지음/ 알마)

● 문의 : 학도넷 사무처 02-720-7259

순수 시민단체인 학도넷의 재정은 회원님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후원금과 회비는 학도넷의 재정자립과 안정된 활동을 보장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은행 356201-04-173422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학도넷)